



지혜의 말씀

불기 2564년 7월 / 통권 473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證道歌 (증도가)

건 법 당 입 종 지
建法幢立宗旨요
명 명 불 칙 조 계 시
明明佛勅曹溪是로다

법의 깃발을 세우고 종지를 일으키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명히 밝히는 것은 조계로구나.

제 일 가 섭 수 전 등
第一迦葉首傳燈이라
이 십 팔 대 서 천 기
二十八代西天記라

가섭존자가 제일 먼저 그 등불을 전해 받았다
이십팔대 조사는 인도의 기록이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자유와 권리 / 서경스님

불교상식 · 9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말씀 · 12

알림마당 · 16

대광사 7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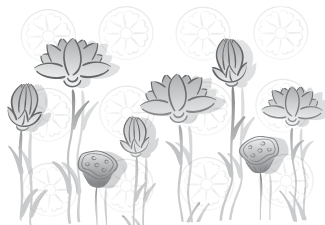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자유와 권리

서경스님 / 대광사 주지

요즘 들어 삼재라는 말을 실감한다. 삼재라 하면 보통 사람들은 화재, 풍재, 수재를 말한다. 그렇지만 원래의 삼재는 전쟁, 기근(굶주림), 질병을 의미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질병이 유행하고 있다.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치료재의 개발은 요원한 사정이다. 여러 나라에서 정부나 지방정부의 통제에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스크 쓰기에 반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이다. 통제 정책으로 인하여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경제 활동의 제약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나 자영업자들 재정적 기반이 약한 사업자들은 파산의 위기에 놓여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국가 전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게다가 그간 조용하던 북한의 움직임도 녹녹치 않고, 나라의 정치도 원만히 돌아가고 있

는 상황이 아니다.

서양 속담이 비가 오면 폭우가 온다는 말처럼 어려운 일은 한꺼번에 닥쳐오는가? 지금의 우리들의 상황과 너무 닮아있다. 코로나에서도 벗어나기 버거운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힘을 모아야 함에도 더욱 매듭을 꼬이게 만드는 상황을 접하게 된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개인과 사회, 국가, 더 나아가서 중생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게 된다.

삼국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공자의 20대 후손인 공융은 강직한 인물이었다. 조조가 유비가 있는 형주 정벌을 하고자 하자 명분이 없음을 직언하여 자신과 가족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된다. 조조의 군사들이 가족을 죽이려고 집으로 들어 왔을 때 어린 자식들은 태연히 바둑을 두고 있었다. 사람들이 피신을 권하였지만 어린 아들은 이런 말을 하였다. “동지가 부서지는데 그 속의 알이 어찌 온전하겠습니까?” 하고 죽음을 태연히 맞이 한다. 과연 공자의 후손이라 할만하다.

현대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무슨 근거로 클럽에 가거나 종교활동을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마스크 쓰기를 강제하며, 전단을 날리는 표현에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러나 개개인은 사회와 국가의 일원이다. 구성원 개개인들이 자신의 이익과 권리만을 주장하고 행사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구성원의 권리와 충돌을 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상황이 바로 이러하다. 개인의 권리는 존중되어야 마땅하나 코로나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니 만큼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의 권리를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뉴스에서 보아 왔듯이 개인의 부주어나 정직하지 못함 등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과 국가,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고통과 비용은 온전히 개개인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다행히 우리 절을 포함한 불교계에서는 아직 확진의 예가 없다. 모두 불자들에게서 지혜롭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종단의 지침을 잘 따라주시고 또한 사중에서도 방역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위생 물품을 배치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시고 애써주시는 신도님들께 감사드린다. 우리 신도님들은 동지의 소중함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 흐뭇하다. 작게는 가정에서 이웃 사회 국가가 우리의 동지이다. 가정이 파괴되고 국가라는 동지가 파괴된다면 개개인들이라는 알들이 자리를 틀 곳이 없다. 조금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거리 두기 마스크 쓰기 등, 생활방역 수칙을 지켜주고 남북이 급격히 대립해가는 과정에서는 표현의 자유도 잠시 접어두며, 당리 당략에 치우치지말고 진정 국민을 지켜주는 든든한 동지를 만들어 주길 기원한다.



4. 수행과 열반

3) 윤회와 해탈

정말 사람은 윤회하는 것일까? 불자들도 이에 대한 확신이 없는 듯한 질문을 던진다. 반면 환생을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도 이따금씩 들리며 환생과 관련한 영화나 드라마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불교에서는 인생이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윤회하며, 공간적으로는 지옥, 축생, 신의 모습으로 생명을 바꾸어 윤회한다고 설한다. 계절이 춘하추동으로 바뀌고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새롭게 꽃이 피듯이, 그렇게 윤회를 견뎌온다는 것은 불교의 독특한 내세관이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윤회는 고통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 해탈할 것을 강조한다.

윤회(輪廻)란 돌고 돈다는 뜻이다. 윤회의 원어는 산스크리트어로 상사라이다. 이말은 ‘흐르다’ ‘움직인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것으로 ‘흘러 맴돈다’는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 윤회하는가? 그것은 내가 지은 업에 따라 돌고 또 돈다. 전행의 나는 현재의 나의 모습에 반영되어있고 미래의 나의 모습은



현재의 나의 행동에 잉태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지은 업에 따라 인간은 윤회전생(輪廻轉生)을 거듭한다.

그렇다면 무아라고 했는데 무엇이 있어 윤회를 거듭하는가? 과거 현재 미래를 끊임없이 이어지는 윤회의 주체가 있다는 말인가? 그 윤회의 주체는 분명 있다. 다만 그 윤회를 이어가는 생명의 줄기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영화 필름은 하나하나 단절되어 있지만 그것이 연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연결되어 보이듯이 말이다. 그렇게한 개체는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순간순간 변하지만 연속성을 지니면서 윤회한다.

고정불변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지만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행위하는자아’는 것이다. 어떤 무엇으로 고정된 자아는 없지만 어떻게 행우하는가 하는 자아는 있는 것이다. 일회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패턴까지 쌓여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된다. 그것이 업의 흐름이다.

사람들은 육도윤회(六道輪廻)의 길을 걷는다. 지옥·아귀·축생의 세계로 들어가서 윤회하는 모습을 삼악도(三惡道)라 하고, 아수라·인간·천신의 세계로 윤회하는 모습을 삼선도(三善道)라 한다.

지옥(地獄)은 끝이없는 추락을 의미하는 ‘나락카’에서 온 말이다. 그 음역이 나락(奈落)이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말이 그런 지옥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지옥, 그곳은 머리를 땅으로 향하고 떨어지는 끝없는 추락이다. 그곳은 어둡고 쓸쓸하다. 고통스러운 절규가 설새없이 터져 나오는 곳이



기도 한다. 그것이 아비규환(阿鼻叫喚)이다.

아귀(餓鬼)란 배고픈 귀신을 일컫는다. 원망과 죄업, 집착이 많은 중생은 좋은 곳으로 떠나가지 못하고 외로운 귀신이 되어 구천을 헤맨다. 이러한 아귀들은 배가 동산만큼 부풀어 있으나 목구멍이 바늘구멍 만큼이나 가늘어 음식을 제대로 삼킬수 없을 지겨이니 항상 기아에 허덕인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주린 배를 채우려고 음식만 보면 앞뒤 가리지 않고 달라붙는다. 아귀다툼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축생(畜生)이란 개, 돼지, 새 등으로 태어나는 존재를 말한다.

이 삼악도에 대비되는 개념이 삼선도이다. 세가지 좋은길이 라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아수라와 인간, 천신(天神)이 해당 된다. 아수라는 악한 신(神)을 말한다. 아주 호전적이며 전투적인 악신을 일컫는다.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며 행동한다. 선한 마음을 지닐수도 있고 악한 마음을 지닐수도 있다. 지옥에 떨어질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 존재이다.

하늘나라에 사는 착한 천신(天神)들은 인간의 운명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수명을 누린다. 이들은 땀을 흘리지 않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닌다. 욕망도 인간보다는 덜하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지만, 도덕적인 면에서는 부완전하다.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들 역시 욕망을 떠나 있지 못하기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신들 역시 하늘나라에 사는 중생의 일종인 것이다. 사천왕이나 범천 브라만, 제석천인 인드라, 이들 모두 신이다. 이러한 천신들은 그수가 매우 많다. 그래서 신들의 무리라 해서 신중이라 한다. 이



러한 신중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인간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호법신(護法神)이라고 한다. 그들은 재앙을 막고 복을 주기에 사람들의 섬김의 대상으로 모셔져 왔다. 법당의 신중단에 이러한 산들이 모셔져있다.

육도윤회가 내세에서만 전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는 육도윤회를 걸브하고 있다. 내가 개나 돼지같은 인생을 살면 축생의 삶이요, 항상 굶주려 탐착하고 다투며 산다면 아귀의 삶이다. 한없는 추락과 절규, 질식할 것 같은 삶이 전개되면 그곳이 지옥이다. 반면 마음에 욕망 덜하고 힘들지 않으며 꽃길을 거닐 듯 하는 삶을 산다면 신의 삶인 것이다.

그런데 선으로의 윤회이든 악으로의 윤회이든 그것은 선악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무리 선하고 행복한 람을 누린다해도 거기에 욕망이 깃들여 있고 시비와 분별, 그리고 그에 따른 대립이 전개된다면 그곳 또한 고통스러운 윤회의 세계이다. 그래서 윤회를 단절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윤회에서 벗어난 삶이 해탈이요 열반이며 깨달은 자의 사람이다. 해탈은 완전한 자유이며 해방이다.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것이다. 더 이상 해탈한 사람을 구속할 그 아무것도 없다. 열반이란 번뇌와 고통우리 불꽃이 완전히 꺼져 고요하고 평화로운 것이다. 모든 것들이 무상하여 생겨났다 사라지지만 열반은 그러한 생멸현상이 모두 잠들어 완전한 평화와 행복, 그리고 지극한 즐거움이 충만한 것이다.



이 열반에 대해서 「열반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함이니 (諸行無常)

순간순간 생겨나서 사라지는 모습일세 (是生滅法)

생기고 사라짐도 다하여 없어지면 (生滅滅已)

그 자리가 다름 아닌 분명한 극락일세 (寂滅爲樂)

해탈은 이룬 자는 시비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 나와 너를 나누지 않고 함께하는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 선사한다. 그는 또한 자비롭다. 그, 래서 고통을 받는 사람의 아픔을 덜어 주고 힘들어 하는 사람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준다. 그리고 석거모니 부처님처럼 길에서 길로 걸어나다며 이웃에게 불법을 전한다. 불법을 전화되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며 스스로 깨우치도록 만든다.

해탈과 열반에 이르고 깨달음을 달성하려면 믿고 수행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며 이웃에게 불법을 전하여 진정 그들이 행복해지도록 해야한다. 그것이 불자들의 신행생활이며, 구도자로서 자각적인 인간들이 걸어야 할 길이다. 그길로 가면 해탈에 이른다. 그 길로 가면 열반에 머문다. 그길고 가면 깨달음이 열린다.



제3품 큰 법문의 품 [Maha-Vagga]

5. 마가의 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라자가하 시의 깃자꾸파 산에 계셨다.
2. 그때 마가라는 바라문 학인이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한 쪽으로 물러앉아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3. [마가] “존자 고타마여,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자, 나 자신의 소유에서 베푸는 자이고 관대한 자이고, 부탁을 잘 들어주는 자입니다. 나는 정의롭게 재물을 구합니다. 정의롭게 재물을 구한 뒤에 정의롭게 얻은 재물, 올바른 얻은 재물을 한 사람에게도 주고, 두 사람에게도 주고, 세 사람에게도 주고, 네 사람에게도 주고, 다섯 사람에게도 주고, 여섯 사람에게도 주고, 일곱 사람에게도 주고, 여덟 사람에게도 주고, 아홉 사람에게도 주고, 열 사람에게도 주고, 스무 사람에게도 주고, 서른 사람에게도 주고, 마흔 사람에게도 주고, 쉰 사람에게도 주고, 백 사람에게도 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도 나누어 줍니다. 존자 고타마여, 내가 이렇게 주고 이와 같이 바친다면 얼마나 많은 공덕을 얻겠습니까?”

4. [세존] “바라문 학인이여, 그대가 참으로 나누어 주고 그와 같이 바친다면, 많은 복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젊은이여, 누구든지 참으로 주는 시주이거나, 관대하여 구하는 바에 응하며, 법에 따라 재산을 얻어 그 재산으로 하여금 한 사람 내지는 백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더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은 많은 공덕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문 학인 마가는 세존께 시로써 여쭙었다.
5. [마가] “가사를 걸치고 집없이 유행하시는 관대하신 고타마께 저는 묻겠습니다. 구하는 바에 관대하며, 부탁을 잘 들어주는 재가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하여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지낸다면, 제사를 지낼 때 누구에게 바치는 제물이 청정하겠습니까?”
6. [세존] “구하는 바에 관대하며, 부탁을 잘 들어주는 재가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하여,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지낸다면, 베풀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성취를 이룰 것입니다.”
7. [마가] “구하는 바에 관대하며, 부탁을 잘 들어주는 재가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하여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



풀어 제사지낸다면, 세존이시여, 베풀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설해주십시오.”

8. [세존] “참으로 세상에 집착없이 유행하며, 아무 것도 갖지 않고 완전히 성취하여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9. 모든 장애와 속박을 이미 끊었고, 자제하고 해탈하여 고통이 없고 바램이 없는 사람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10. 모든 장애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제하고 해탈하여 고통 없고 탐욕 없는 사람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11.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번뇌를 부수고 청정한 삶을 사는 사람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12. 허위나 독단을 지니지 않고, 탐욕을 떠나 내 것이 없고, 욕망을 떠난 사람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13. 참으로 강애에 빠져들지 않고, 거센 물결을 건너 내 것 없이 유행하는 사람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



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14.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어떠한 세상에서도 존재와 비존재에 대한 갈애가 없는 사람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15.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집없이 유행하며, 자신을 다스리고, 베틀의 북처럼 곧바른 사람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16. 달이 라후의 장애에서 벗어나듯, 감각을 잘 다스려서 탐욕을 떠난 사람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17. 고요함을 얻어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이, 이 세상 완전히 버려 태어날 곳 없는 사람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18. 태어남과 죽음을 남김없이 버리고 모든 의혹을 넘어 선 사람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19. 자기를 섬으로 하여 이 세상에서 유행하며, 아무 것도 없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20. 이것이 마지막이고 다시는 태어남을 받지 않는다고, 여기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21. 지혜에 통달하고, 선정을 즐기며, 마음챙김을 확립하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의 의지처가 되는 사람들, 올바른 때에 그들에게 공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바라문은 그들에게 헌공하십시오.
22. [마가] “참으로 저의 질문은 헛되지 않았습시다. 세존께서는 보시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해 설하셨습니다. 당신께 진리가 있는 그대로 알려졌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있는 그대로 그것에 대해 알고 계십니다.
23. 저의 부탁을 잘 들어주고, 재물을 베푸는 재가의 신자로서, 공덕을 구하고 공덕을 기대하며,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음식을 베풀어 제사지내는데, 세존이시여, 제게 완전한 제사에 대해 설해주십시오.”
24. [세존] “마가여, 제사를 지내십시오. 제사를 지내면서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는 제사지내는 자의 토대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여 자신의 죄악을 버립니다.
25. 그리고 탐욕에서 떠나 죄악을 제거하고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닦아, 밤낮으로 항상 방일하지 않아서 모든 방향으로 그 한량



없는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26. [마가] “누가 청정하고 해탈한 것입니까? 누가 묶인 것입니까? 무엇으로 인해 사람은 스스로 하느님 나라에 이르게 됩니까? 성자시여, 몰라서 묻는 것이니 일러 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오늘 하느님으로 화현하신 것을 저는 압니다. 신실로 당신은 하느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빛나는 님이시여, 어떻게 하면 하느님 나라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27. [세존] “마가여, 제사지내는 자가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제사를 지내면, 그는 보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의해 목표를 성취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올바르게 제사를 지내, 요청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느님 나라에 태어난다고 나는 말합니다.
28. 이처럼 말씀하시자 바라문 학인 마가는 세존께 이와 같이 말했다. [마가] “존자 고탐마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탐마여, 훌륭하십니다. 존자 고탐마여, 마치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듯이 가려진 것을 열어 보이듯, 어리석은 자에게 길을 가리켜주듯, 눈을 갖춘 자는 형상을 보라고 어둠속에 등불을 가져오듯, 존자 고탐마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세존이신 고탐마께 귀의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에 귀의 합니다. 또한 그 수행승의 모임에 귀의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목숨이 다할 때까지 세존이신 고탐마께서는 저를 재가의 신자로서 받아 주십시오.”

- 다음호에 계속 -



◎ 대광사 7월 법회 및 행사 ◎

- ◇ 7월 5일 : 음력 5월 보름법회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7월 9일 : 백중기도 기간 팔관재계 입재
- ◇ 7월 14일 :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 ◇ 7월 16일 : 백중기도 입재 오전 10시 설법전
- ◇ 7월 21일 : 음력 6월 초하루 기도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7월 22일 : 백중기도 초재 오전 10시 설법전
- ◇ 7월 23일 : 초하루 기도 회향
- ◇ 7월 29일 : 백중기도 2재 오전 10시 설법전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고맙습니다

대광후원회

(5.16 ~ 6.15)

이동이연숙 100,000	손보미 10,000	오현철 20,000	강 란 10,000
김경남 20,000	박미애 10,000	이지원 10,000	유미란 50,000
황두관 10,000	이금재 30,000	조한분 25,000	대광사 100,000
이경화 10,000	정대식 30,000	정진이 20,000	
(주) 카텍 300,000	김지현 50,000	황두관 10,000	
원광한의원 100,000	김복연 20,000	찬불단 50,000	

◆ 금식소 후원 계좌: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후원

조한분 25,000

♥ 초파일 공양자

김장곤	최창을	안종권	이미애	강현준	이두형	진성화
이종민	김원규	안은옥	변창인	황태정	고봉주	고태우
김정애	이현실	심현보	정형우	김기만	소라상회	
안정환	황인섭	이영학	이광석	정호철	한오순	환희장
조형식						



온라인 입금 안내

경남은행 : 518-07-0096440

예금주 - 대광사

수협 : 921-61-000421

예금주 - 대광사

농협 : 821145-51-042833

예금주 - 대광사

국민은행 : 654301-04-231813

예금주 - 대광사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